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중국의 유명한 술 제조회사인 수정방의 경영권이 조니워커를 생산하는 영국의 주류업체인 디아지오에 넘어갔다고 한다.

고 한다. 술 공장 주변의 인구가 너무 많아 물 부족과 토양 오염 등으로 모태주의 생산과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중국이 수정방을 영국 회사에 팔아버렸으니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다. 때

수정방(水井坊)의 운명

각의 이유는 경영난 때문이라 하지만 경제대국 중국이 이 정도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진다.

수정방의 모기업은 사천성 성도(成都)의 수정가(水井街)에 있는 전흥집단(全興集團)인데 이 그룹은 전흥대곡(全興大曲)이라는 우수한 술을 생산해 왔다. 전흥대곡은 중국령주회(中國評酒會)에서 1963년, 1984년, 1989년 세 차례나 중국 명주로 선정된 농향형(濃香型) 백주이다. 나

면 한 병씩 사오곤 했다.

이 회사가 1998년 8월, 양조장 개량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지하 1m에서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옛 명청(明清) 시대의 주조시설을 발견했다. 전흥그룹은 이것을 '진시황 병마용에 비견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굴' '무자사서(無字史書)' 즉 글자 없는 역사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산하던 전흥대곡의 생산을 중단하고 2000년부터 수정방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주교(酒窖)인데, 교(窖)는 중국술을 저장하는 토기(土器)로 위스키를 저장하는

사용된 교의 생산물은 수정방이 아니라 전흥대곡의 몫으로 돌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랜 전통을 가진 전흥대곡을 폐기하고 수정방이란 이름으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둘째는, 고가전략(高價戰略)이다. 수정방은 지나치게 화려한 포장을 하고 높은 가격으로 출시되었다. 500ml 한 병에 우리 돈으로 15만 원쯤 되니 대단히 비싼 값이다. 그러나 비싼 만큼 품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 값비싼 물건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수정방을 선호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정이 다른 모양이다.

출시된 지 10년 남짓한 '신술 귀족'인데다가 맛도 전흥대곡 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고 값도 터무니없이 비싼 수정방이 중국인들에게 외면당한 것이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결국 역사사 10년밖에 안 되고 높은 가격으로 중국인들에게 외면당하는 수정방을 외국 회사에 넘겨도 중국의 자존심에 손상이 가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만일 모태주나 노주노교특곡(瀘州老窖特曲) 같은 술이라면 절대 외국에 팔지 않았을 것이다. 디자인이 경쟁하는 수정방의 앞날을 지켜볼 일이다.

(성균관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한나라 새 지도부, 균형·민생·소통 강화해야

한나라당이 4일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홍 신임 대표 등 새 지도부는 산적한 국정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고 내년 19대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한나라당은 변해야 한다. 이는 지난 4·27 재보선을 통해 국민이 내린 지상 명령이다. 따라서 새 지도부는 당의 정체성부터 확 바뀌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 지도부 앞에는 당장 감당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무엇보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물가 불안 등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집권당의 새 지도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기득권에 집착

해 수도권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부터 천명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기는커녕 국회를 통폐부로 전락시키는 등 청와대의 성실한 친위대 노릇을 해왔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나라당이 정체성부터 바꿔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새 지도부는 계파 해체, 참신한 인재 영입, 탕평 인사 등 당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계파정치에 할복돼 국정과 민생을 돌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진정성을 갖고 집권당의 본분을 다해 새로운 한나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내일은 없다.

여수박람회 '교통대란' 우려, 이대론 안 된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에 1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여수박람회 기간 중 1047만9000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이용 관람객이 647만7000명에 이르고, 관람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여수를 찾는 승용차가 하루 최대 6만2755대에 달할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여수시내 6개소 153만1000㎡에 조성중인 환승주차장(승용차 3만3087대·대형버스 864대) 규모를 감안하면 '주차대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대중교통 수단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관람객 중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을 통해 4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송 수단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수로 연결되는 고속·시외버스가 주말에만 1200대 가량이 필요하고, KTX는 주말 최대

40편, 항공기도 93편의 증편 운행이 이뤄져야 그런대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여수시내 도로가 극심한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운송망이 분산되지 않고 교통 수단마저 태부족하다면 여수 포 기간 여수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수공항 활주로 400m 연장과 크루즈항 부설, 신·구항 연결도로 신설 등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교통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박람회 조직위, 전남도, 여수시 등은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과 운영, 대중교통 수단의 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는 시기적절하게 SOC사업을 벌이는 일이 어렵다면 해상과 항공망 활용, 운송 수단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급선무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엑스포를 위해 '울인'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심이 필요할 때



장우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비장애 형제 자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해결 방안이 부족하다.

이는 현재 장애인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당신이 낳은 자식이니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일방적 강요이자, 희생의 요구를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자고 하는 것이다.

또 장애인 가정에도 휴식지원이 필요하고 각종 치료와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장애인 가족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과 사례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맞춤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하다.

제대로 된 양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학교 중도탈락률도 높고 부모 대신 생계를 책임 지는 자녀도 많다. 이런 가정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 맞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재할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의 자조 네트워크 형성지원 및 장애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자녀를 출산하면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은 평생을 수발해야 하는 가정이 92.5%에 이른다. 또 평생 동안 이어지는 사회적 편견과 가족 간의 불화, 각종 치료와 보장구 구입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겪는 어려움 등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장애인 가정에 대한 문제를 언제까지 한 가정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고 전적인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

이제는 누구나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

장애인 개인 중심의 복지정책을 뛰어 넘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각 가정의 실정에 맞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아를 출산하면서 겪게 되는 장애인가족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살면서 힘든 과정들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기고

여수박람회 성공과 광양경제자유구역



임현근

역이 될 수도 있지만 내년에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는 '야망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람회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못 미치는 해양레포츠 시대를 선점하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진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순한 전시와 이벤트로 끝날 경우 세금만 낭비한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때문에 여수세계박람회는 전남 관광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단순히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박람회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전시 컨벤션과 건축물만으로 관람객을 여수로 유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서다.

우리는 막대한 국비를 쏟은 국제 행사로 결국에는 건축물만 남아 애물단지로 변하는 것을 지난 대전엑스포에서 충분히 체험했다. 또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다와 연안에 대한 해양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집약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또 남해안권의 지자체 간 협력과 나아가 동아시아 해양도시 협력을 통해 '국제도시 여수'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환경보호, 녹색성장, 해양 개발에 관한 산업

화 기술과 상품 관련 업체, 연구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또 인근 광양민권을 비롯한 동부지역의 천혜의 자연경관, 문화 등에 대한 미래 레저 산업의 가능성을 각인시켜 관광산업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잔치가 코앞인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인근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곡성 등 동부 6군의 절대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여수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성공 개최를 통해 어떻게 주변 지역과 성공의 이익을 공유해나갈지에 대한 연구와 공감대가 미흡해서 인 것 같다.

여수엑스포는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청 설립특별위원회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세계 동안 서구와 교류해온 상하이, 시모노세키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여수, 순천과 광양이 이기려면 여수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청 공모관)

는 식인데 영어가 우리말을 무너뜨린 셈이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 숫자상 많음을 강조하려다 보니 '~들'을 안 쓰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는 족발, 외갓집, 가장

최근, 의사선생님 등과 같이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가 고착화되는 것과 같다.

이제부터라도 '~들'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쓰임새를 정확히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유은규·광양시 항일동

접미사 '~들' 남용 말고 제대로 사용하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기사나 칼럼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시민의 대화만 들어 봐도 시민들, 우리들, 대중들 등의 경우와 같이 접미사 '~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심지어 '많은 국민들, 대다수 사람들'처럼 필요 이상으로 '~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구분별 '~들' 사용은 복수의 의미보다는 비정격의 뜻으로 쓰이는 일도 있다. 따라서 '~들'은 예외적인 상황이나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 때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국민과 같은 집합 명사는 '~들'을 붙이면 군더더기가 돼서 그것을 빼야 하고, 많은, 대다수 등은 그 자체가 복수를 뜻하므로 '~들'을 쓸 필요가 없다. 이상을 정리하면 '많은 국민들' 대신 '국민'이나 '많은 국민'이라고 써야 적절한 표현이 된다.

우리 국민은 '~들'을 왜 즐겨 쓰는 것일까? 이는 근본적으로는 영어의 영향이 크다. 영어의 영향 중 다른 하나인 '~하기에 충분한(Enough to)'이라는 말과 같다. 우리 말에는 이런 표현이 원래 없이 '~을 잘 할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이 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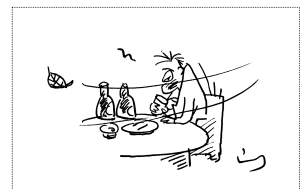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의 술집 풍경에서 가장 큰 차이는 '동행'이나, '나홀로'이나 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직장동료나 친구끼리 모여 술을 마시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홀로 바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흔하다.

혼자만의 생활습관이 강한 일본에서 요즘 '1인 나홀로 세대'가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과 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주목된다. 교과부는 2015년 까지 모든 초·중·고 교과서의 종이 교과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적성, 필요에 맞는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으며 학생평가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된다. 디지털 교

'孤族사회'



로지 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전체의 30%를 돌파했다. 이를 두고 '고족(孤族) 사회'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0월 현재 1인 세대는 1588만5000세대. 일반적인 형태였던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세대는 1458만8000세대(28.7%)에 머물러 1인 세대가 처음으로 비중이 커졌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서는 혼자 먹고, 마시고, 외출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극도로 발달한 일본의 IT기술이 혼자 사는 사람을 양산했다는 풀이도 있다.

과서는 교과 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공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기능을 연계해 PC, 스마트폰 등 모든 단말기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스마트교육' 대한 격정이 나왔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

통령은 "스마트교육으로 가야하지만 컴퓨터와만 친해서 친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 세대들에게 스마트폰, PC와 부모 형제, 친구를 놓고 선택하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